

제넥신 면역항암제 'GX-17'

美 FDA 희귀의약품 지정

특발성 림프구감소증에 사용
암환자의 유일한 치료제 기대

제넥신이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GX-17'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특발성 CD4+ 림프구감소증(ICL)에 쓸 수 있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16일 제넥신에 따르면 GX-17은 면역세포 성장 및 활성화 물질 '인터루킨-7'(IL-7)을 기반으로 암, 감염질환, 림프구 감소증 등에 쓸 수 있도록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이다. 제넥

신과 미국 관계사 네오이뮤텍이 공동 개발 중이다.

ICL은 면역세포 결핍 관련 질병 없이도 체내 면역세포가 급격히 감소해 치명적인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암 발생 위험이 높은 특징이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GX-17은 지난 2017년 5월에도 유럽의약품청(EMA)로부터 'ICL'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미국에서도 최초로 ICL 관련 희귀의약품에 지정되어 현재 선진국 시장에서 'ICL'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가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GX-17은 단독 투약뿐 아니라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 투약도 가능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넥신 관계자는 "GX-17은 체내 T세포 증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 인터루킨-7을 자사의 지속형 기술과 융합한 것으로 ICL 뿐만 아니라 화학치료제와 방사선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에게서 대부분 나타나는 림프구감소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셀트리온 "독감신약, 타미플루보다 효과 빨라"

유럽 임상 감염질환 학회서 발표
증상·발열 해소까지 2일 단축

셀트리온이 인플루엔자(독감) 신약 임상 결과, 타미플루 등 기존 의약품보다 빠른효과를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감염질환 학회(ECCMID)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인플루엔자 항체 신약CT-P27의 임상 2상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4년 영국에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CT-P27 전기 임상 2상을 통해 약효 및 안전성을 확인한 데 이어, 2016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A 감염환자를 대상으로 CT-P27 후기 임상 2상을 진행해 왔다.

임상에서 연구진은 인플루엔자 A 감염환자 220여명을 세 군으로 나누어 CT-P27 90mg/kg, CT-P27 45mg/kg 또는 위약을 투여한 후 인플루엔자 강도 및 영향 설문지, 체온, 부작용, 혈액검사 결과 등을 수집 분석해 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가지 다른 용량의 CT-P27을 투여 받은 군에서 모두 CT-P27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가 1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감염질환 학회에서 셀트리온의 인플루엔자 신약의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여 군은 위약 투여군에 비해 증상 및 발열 해소까지의 시간이 약 2일 (약 35%) 단축되는효과를 확인했다.

학회에서 구술 발표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CT-P27 치료군은 인플루엔자 증상 및 발열이 해소 되기까지의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며 "CT-P27이 시판되면 타미플루 등 기존 약제를 대체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CT-P27은 두 항체로 이뤄진 복합 항체치료제다. CT-P27의 항체는 바이러스의 표면단백질인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

n)의 축(stem) 부분에 결합해 바이러스 유전체가 세포 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헤마글루티닌의 축은 변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CT-P27은 바이러스의 변이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인플루엔자에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첫 항체 신약인 CT-P27의 2b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유효성과 안전성 결과를 권위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임상 미생물 및 감염 질환 학회에서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항체 신약 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광동 옥수수수염차, 조보아와 새 CF 선택

'수고했어 오늘도' 개사로 관심 끌어

광동제약이 광동 옥수수수염차의 모델로 배우 조보아를 선정하고 새 CF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평소 짜게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돌아보며 짠 음식에 어울리는 차음료로 광동 옥수수수염차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CF에서 조보아는 염분이 많은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여유 없는 생활로 인해 혼자 편의점에서 간단히 라면을 먹거나 길거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저녁 모임에서 짜게나 탕과 같은 국물요리를 즐기는 모습은 평범한 이들의 일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사의 배경음악과 어우러져 더욱 눈길을 모은다. 인디밴드 옥상달빛의 히트곡 '수고했어 오늘도'를 '수고했어 오늘도'로 개사한 것. 이 CF송은 짠 음식을 즐겨먹는 식습관을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비유로 재치있게 풀어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에서 조보아는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짜게 먹은 하루를 돌아보며 광동 옥수수수염차를 제안한다.

/이세경 기자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이대목동병원은 16일 배하석 재할 의학과 교수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지정한 '공정한 경기(Play True)'의 날(10일)을 기념해 개최된 2019 도핑방지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도핑방지 활동을 통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반도핑 유공자로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배 교수는 현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 이사장, 차기 임상통증학회 이사장,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치료목적 사용 면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초콜릿, 중년 난청예방에 '효과적'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 분석 결과
섭취 빈도 높을수록 평균청력 높아
과당 주성분인 과자류는 연관 없어

국내에서 초콜릿이 난청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길을 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학통계실 공동 연구팀(이상연, 박무균, 장명진)은 국민영양건강조사에 참여한 40~63세 중년 남녀 3575명의 청력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난청과 초콜릿 섭취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32.7%(1170명)가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난청으로 진단됐다. 이런 난청 유형률은 초콜릿 소비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평소 초콜릿을 먹는다고 응답한

1262명의 난청 유형률은 26.8%로, 초콜릿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2313명의 36.0%보다 10% 포인트 낮았다. 연구팀은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 스



트레스, 음주습관, 폐경, 만성질환, 이 어픈 사용 등 요인을 모두 보정했을 때 초콜릿을 먹는 사람에게서 난청이 생길 위험이 초콜릿을 먹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17% 낮은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양쪽 귀가 모두 난청일 위험도만 보면 같은 비교조건에서 21% 차이가 났다. 또 초콜릿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난청 발생률이 낮아지고, 평균 청력이 높아지는 연관성도 확인됐다.

다만, 이런 연관성은 코코아가 들어가지 않은 과당(당분)이 주성분인 아이스크림류, 과자류, 케이크류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초콜릿의 청력 손실 예방 효과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코코아 성분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에 기반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박무균 교수는 "초콜릿 식이요법이 중년층에서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연관성을 제시한 첫 연구결과"라며 "과당이 포함된 제품 섭취군에서 난청 예방 효과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초콜릿 식이요법이 중년층의 청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최신호에 실렸다.

/이세경 기자

중증 여드름약, 기형아 출산 유발 우려

레티노이드계 치료제 임부 사용 경고

이소트레티노인 등 '레티노이드계' 중증 여드름 치료제를 복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권고나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모든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증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사는 환자에게 관련 의약품의 기형 유발 위험성을 설명하고 복용 1개월 전, 복용 중, 복용 후 최소 1개월 동

안은 임신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의 경우엔 복용 후 3년 까지 피임해야 한다.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 의약품을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하여야 해야 한다. 또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 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했으며, 허가 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제약사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태아기형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세경 기자

도드람,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신선도 유지

친환경 발수체로 하수구 처리 용이

한돈 브랜드 도드람은 환경오염 예방 및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축산물 전문 쇼핑몰 최초로 제품 배송 시 사용되는 아이스팩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드람은 필(必)환경시대에 발맞춰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고, 가정에서 일반 아이스팩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친환경 아이스팩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이스팩은 폴리머라는 합성수지를 사용해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하수구로 내용물을 버릴 경우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도 있다.

도드람이 도입한 친환경 아이스팩은 친환경 발수체를 사용해 물은 버리고 남은 비닐은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냉력도 기존 아이스팩에 비해 약 15% 높아 제품 신선도 유지에 더욱 탁월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